

# 그리스 세계의 팽창과 변동 1편

글. 김인겸 역사문화 칼럼니스트

## 식민 활동과 마그나 그라이키아

도리스인의 침입이 야기한 혼란이 안정될 즈음 그리스 세계는 다시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의 핵심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현상이었다.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에서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지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토지의 분할상속이 늘어나 몰락하는 농민의 숫자도 점차 많아졌다. 그리스는 원래부터 경작지가 협소했기에 일조량이나 물이 부족해지면 바로 심각한 상태에 빠지곤 했다. 한편 암흑시대에 그리스 전역에서 확립된 귀족 지배 체제도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권력투쟁을 지속하여 체제 자체가 동요하고 있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본토를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이른바 식민 사업이었다.

식민 활동을 위한 제반 조건들도 갖추어져 있었다. 오래전부

터 발달해온 항해기술은 기원전 7세기 초에는 군선으로 3단 노선을 건조할 수준까지 올라왔다. 폴리스들은 식민 선발대를 파견하기 전에 델피에 신탁을 물었다. 초기에는 직관에 의존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며 이미 정착한 식민가들에게 수집한 정보가 축적되었다. 즉 델피는 일종의 정보 교환처의 역할도 한 것이다.

이처럼 정보와 기술로 무장한 그리스인은 기원전 750년 무렵부터 이민족의 세력권에 속하지 않은 서쪽으로 본격적인 식민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스인은 현재의 나폴리, 마르세이유, 니스 등에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특히 이탈리아 반도 남단으로의 진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카푸아, 시라쿠사, 타렌툼, 바리 등에 식민도시를 건설했는데, 성립과정이 같지는 않았다. 여러 개의 폴리스가 공동으로 세운 하나의 식민도시도

그림 1. 마그나 그라이키아 파에스툼의 아테나 신전 / 출처 : 위키미디어



있었고, 1세대 식민도시가 다른 지역에 세운 2세대 식민도시도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1세대 식민도시와 인연을 끊는 경우는 없었다. 1세대 식민도시에서 건설 지도자를 초빙하거나, 1세대 도시의 정치·사회 체제를 도입하고 관습법 등을 똑같이 지키기도 했다. 예컨대 아크라가스(현재의 아그리겐토)는 로도스와 크레타의 시민이 공동으로 세운 식민도시 겔라에 의해 건설된 2세대 식민도시인데, 로도스와 크레타, 겔라에서 지도자를 뽑았다. 그렇다고 해도 1세대 도시에 연속된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독립하였다.

시칠리아는 토지가 비옥하여 식민자들이 도입한 선진 농업기술로 인해 그리스 본토보다 부강해졌다. 이 때문에 많은 식민자들이 몰려들어 이탈리아 반도 남단과 시칠리아를 아우르는 지역은 ‘그리스인의 거대한 정착지’라는 의미로 라틴어 마그나 그라이키아(Magna Graecia)라는 별칭이 생겼다. 이탈리아 반도 남단의 여러 곳에 남아 있는 웅장한 그리스 신전이나 유적은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번영을 잘 보여준다.

처음 식민활동에 참여한 폴리스는 칼키스, 코린토스, 메가라 등 소수에 불과했다. 밀레토스는 좀 더 늦게 흑해 쪽으로 진출해 주로 상업 목적의 식민시를 다수 건설했다. 밀레토스가 건설한 식민시들은 다른 지역의 2세대 도시와 내륙 지역과의 무역으로 한층 더 발전했다.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그리스 본토의 국내 경제에도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돌았다. 토지소유와 농업에 경제적 기반을 가진 귀족 지배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리스 세계에서 참주가 가장 먼저 출현한 것



그림 2. 마그나 그라이키아 / 출처 : 위키피디아

도 식민활동에 적극적이던 폴리스들이었다. 한편 식민시는 주변의 이민족과는 융합하지 않고, 그리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스스로를 ‘헬레네스’라 칭하며 이민족과 철저히 구별했다. 그리스인의 식민 활동 확대는 민족의식에도 영향을 주었고, 본토의 내적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제 그리스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 코린토스의 번영

신약성서에 ‘고린도’라는 지명으로 나오는 코린토스는 식민 활동과 이에 따른 상공업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그리스 본토 도시와 식민지 사이의 교역을 지중해 전 지역으로 확장하며 발전한 폴리스이다. 코린토스는 이미 기원전 7세기 초에 그리스 최초의 3단 노선을 건조해 코린트 만과 사론 만 사이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서교역, 특히 서방교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또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코린토스 지협은 육상 교통의 거점이었다.

이렇게 육지와 바다의 요충지를 확보한 코린토스는 상업의 활성화를 수공업의 발전으로 이어갔다. 특히 도기 제조업에 주력했는데, 초기 코린토스 양식으로 불리는 도기들은 이집트나 시리아의 오리엔트 양식의 문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 전까지 그리스 도기는 기하학 문양이었지만, 기원전 8세기 말부터 사자나 스핑크스를 그려 넣기 시작했다. 누르스름한 빛이 나는 흰 바탕 위에 짙은 홍차 색의 그림이 그려진, 향료를 넣는 작은 병은 인상적이다. 동방의 동식물 문양은 코린토스 도기의 주류가 되었고, 그것들은 코린토스 상인들에 의해 동쪽으로 흑해 연안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수출되었다.



그림 3. 코린토스의 초기 도기 / 출처 : 버클리대학교

당시 그리스 세계는 아직 화폐경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경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코린토스 외에도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기원전 7세기 말경 이집트까지 운항하던 사모스인 콜라이

오스의 배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넘어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소스까지 항해하여 그곳에서 실어온 물건들을 본국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고 헤로도토스는 전한다.

그런데 이 무렵 코린토스는 바키아다이라는 귀족 가문의 자의적 지배와 군림하에 있었다. 이 가문에 라브다라는 다리가 불편한 딸이 있었는데, 장차 그녀의 아들이 코린토스를 지배하리라는 델피의 신탁이 나왔다. 가족들은 라브다가 낳은 갓난 아들을 죽이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라브다가 아이를 ‘케작’(그리스어로 킵셀레)에 넣어 죽음을 모면하게 했다. 그 아이가 후일 코린토스의 참주가 된 킵셀로스이다. 케작에 넣어 미래에 영웅이 될 아이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와도 유사하다. 아마도 케작은 선택받은 지도자, 혹은 시련을 상징하는 장치의 은유일 것이다.

코린토스는 킵셀로스와 그의 아들 페리안드로스의 통치 기간에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들은 해군력을 증강하고 국내 산업을 장려해 폴리스의 발전에 힘썼다. 코린토스의 도기 수출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와 두 사람의 통치 기간이 겹치는 것은 우연만은 아니다. 그들은 상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참주정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페리안드로스는 일부 시민이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예 취득 금지령을 포고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 농민이 받아온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는 셈이 되었다. 그 밖에 항만세, 아고라 세 등을 징수해 상업 활동을 진흥하였다.

현재 코린토스 지협에는 운하가 뚫려 코린토스 만과 사론 만이 연결되어 있는데, 페리안드로스도 그곳에 운하를 파려고 했다. 페리안드로스의 계획은 그의 사후 디오르코스가 실행했다. 그것은 한쪽 만에 정박한 배를 반대편 만까지 지상으로 인양해 운반하는 육로의 뱃길이었다.

코린토스는 상공업뿐만 아니라 문화 진흥에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며 참주정 하에서 번영을 누리며 최대의 도기 수출국이 되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 중엽 참주정이 무너질 무렵부터 아테네가 도기 산업에 진출하면서 코린토스의 도기 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그와 동시에 코린토스의 국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위상 역시 무너졌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어떤 국가가 자국의 국력을 지탱하는 중심 산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여 그 산업을 증진시키고, 그 산업에 위기가 닥칠 것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포트폴리오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올림피아 제전

막역한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잃은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념경기를 열었다. 전차 경주, 권투, 레슬링, 달리기 경주, 칼싸움, 쇠덩어리 던지기, 궁술, 그리고 투창이 차례로 열렸다. 참가자들을 위해 아킬레우스는 누구나 탐낼 만한 상을 내걸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드』에서 그 경기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올림피아 제전은 경기를 좋아하는 그리스인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 효시는 기원전 776년에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그리스 전체의 제전은 아니었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부에 국한된 소규모 지역 경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스파르트, 아테네를 비롯하여 이오니아 도시들이 참가하기 시작하고, 기원전 6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식민시에서도 참가자를 파견하자 그리스의 민족 제전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각 폴리스에 출현한 참주들도 국민의 존경과 인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시키온의 클레이스테네스, 코린토스의 페리안드로스 등 많은 참주가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 경력을 보유했다.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종목도 많아졌다. 처음에는 칼싸움과 궁술을 제외한 아킬레우스의 경기가 중심이었으나, 쇠덩어리 던지기 대신 원반던지기가 도입되었고, 도약과 장거리 달리기, 판크라티온(모든 힘을 다하는 격투기, 현대의 종합 격투기와 유사함) 등이 추가되었다. 그 가운데 경주, 투창, 원반던지기, 도약, 레슬링을 특별히 5종 경기(펜타트론)라 부르고 그 종합 우승자가 진정한 승리자로 간주되었다. 올림피아 경기의 종목 대다수가 현재의 올림픽 경기에 남아 있지만 경기 방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 종목도 많다. 오늘날 도약(멀리뛰기)에서는 더 먼 거리를 뛰기 위해 팔을 흔들며 가속을 얻지만, 고대에는 할테르라는 일종의 추를 이용했다. 도약판 약간 앞에 서서 할테르를 왼 양팔을 앞뒤로 흔들다가 도약하는 순간 양손을 앞으로 뻗고 착지할 때는 팔을 힘 있게 아래로 젖히며 할테르를 뒤쪽으로 내던지며 도약 거리를 늘렸다. 투창도 창 중심 가까이에 고리를 만들어 그것을 잡고 던졌다.

아킬레우스가 경기를 주관할 때는 호화로운 상품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의 올림피아 경기에서는 올리브 가지로 만든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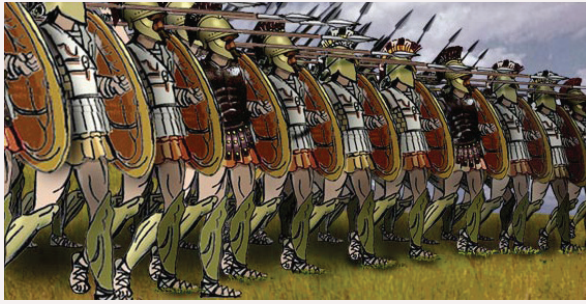


그림 4. 스파르타의 팔랑크스(중장보병 밀집대형) 전술(복원도) / 출처 : 위키피디아

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올림피아 경기에는 명예와 그 명예에 수반되는 부를 좇아 전 그리스에서 참가자가 몰려들었다. 참가자의 자격은 헬레네스 자유인 남성에 한정하였으며 이방인과 노예는 절대 참가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남성 시민에게만 허용된 극히 폐쇄적인 이 제전은 식민 활동에서 싹튼 민족의식을 더 강화시켰다. 그리스인은 일상에서는 폴리스를 단위로 삶을 영위하였으나,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서는 폴리스 위의 그리스인(헬레네스)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다.

### 군사국가 스파르타

그리스 폴리스들 가운데서도 매우 특수했다고 알려진 스파르타도 폴리스 성립 초기에는 다른 폴리스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이탈리아 남부의 타라스(현재의 타렌토)에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고, 그곳의 출토품인 라코니아 도기는 우수한 품질로 유명했다. 그러나 기원전 7세기 무렵부터 이른바 ‘스파르타’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도리스인의 일부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라코니아 지방에 정착한 것은 기원전 10세기 이후의 일이다. 이 땅의 정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페리오이코이(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라는, 자유롭지만 참정권은 없는 계층과 완전한 노예 신분인 헤일로타이 두 계층이 피지배층이 되었다. 그 후 스파르타는 이웃한 메세니아 지방을 두 번의 전쟁으로 제압하여 급격한 영토 확장을 이루었다. 메세니아 주민의 대부분이 헤일로타이로 전락하자 비자유민의 수는 스파르타 시민에 비해 현저히 많아졌다. 피지배 노예 계층의 반란을 극도로 두려워한 스파르타인은 국가 체제를 전사 국가로 바꾸어 갔다. 그것이 리쿠르고스 체제였다. 그러나 리쿠르고스는 실존한 인물인지조차 불분명하며, 따라서 리쿠르고스 체제라는 병영국가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파르타라

는 폴리스 건국 이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추진한 일련의 여러 개혁을 일컫는 말로 리쿠르고스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파르타 체제의 큰 특징은 두 명의 왕에 의한 공동통치가 지속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왕의 권한은 그렇게 막강하지 않아 대체로 군사와 제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왕에게는 벌금을 물리거나 심지어 투옥하기까지 했다. 정치를 실제로 담당한 것은 왕 2명을 포함한 30명의 원로회와 기원전 6세기경부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 5명의 감독관(에포로이)이었다. 에포로이는 왕을 감시하고 심지어 체포할 수도 있었다. 또한 에포로이는 민회, 원로회를 운영하고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임기는 1년이고 중임은 허용되지 않았다. 에포로이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헤일로타이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그것은 반란방지책이며 동시에 청년 교육의 일환이었다. 일부의 청년에게 단검과 최소한의 식량만 지급하여 산으로 들로 내보냈다. 그들은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밤이 오면 헤일로타이를 체포해 살해했다. 또 밭에서 일하는 자 가운데 가장 힘센 자를 골라 죽이기도 했다.

스파르타의 청소년 교육은 매우 엄격하여 지금도 엄격한 교육의 대명사로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이다. 스파르타에서는 유아 때 검사를 통해 건강한 사내로 성장할 가망이 없어 보이면 타이케토스 산의 구덩이에 버렸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일곱 살이 되면 아이들만의 그룹에 편입되고 열두 살이 되면 성년 무리에 가입한다. 소년들은 형뻘의 지도자 몫의 식량을 받거나 어른의 공동식사에서 훔쳐 조달해야 했다. 붙잡히면 매를 맞고 그날 치 식량을 빼앗겼다. 적과 싸우기 위한 담력과 교활함을 기르기 위해서였지만, 어떤 아이는 훔친 여우를 품속에 숨겨 갖고 있다가 그 여우에 물려 죽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이다.

남자들은 30세까지 공동생활을 하고 그 후에도 공동식사에 참여해 그 과정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소녀 역시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하여 투창 등으로 신체를 단련했으며 단체로 훈련을 받았다.

이처럼 엄격한 교육과 생활을 통해 스파르타는 국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스파르타가 그리스 최강의 육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스파르타만의 내부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